

우리 현대사상의 광맥을 찾아서 ⑤-1 장일순과 무위(無爲)의 한살림

무위당 장일순(張壹淳: 1928~1994)은 일반인들에게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지만, 시인 김지하나 이현주 목사, <녹색평론> 발행인인 김종철 선생, 판화가 이철수 선생처럼 우리시대의 중요한 지식인들에게 정신적 스승으로 추앙되는 인물이다. 평생을 원주에서 살며 교육운동, 민주화운동, 협동조합과 환경운동 등에 헌신했고 유교, 노장사상, 불교와 민중적 기독교가 어우러진 심오한 생명사상을 평이한 어조로 설파한 사상가였지만,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실천적 삶은 그를 익명의 민족들 속에 보석처럼 묻혀있게 만들었다. 그의 난초 그림이 아무런 꾸밈없이 그토록 빛나는 것은 아마 그런 그의 삶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장일순 선생의 생애와 사상이 지니는 뜻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면접자)



모든 생명을 하늘처럼 모시어라

김지하 시인의 스승이었던 무위당 장일순 선생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그의 아호가 ‘조한알(一栗子)’이듯이, 아주 작은 콩알처럼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항상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고 모시라는 그의 가르침이 자신의 일상 속에서 평생 깊이 있게 실현되어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1950년대 20대 나이로 중립화 평화통일운동과 원주 대성학원을 설립하는 교육운동을 시작했다. 1970년대는 협동조합운동을 통하여 지학순 주교님과 함께 농민들의 두레 교육을 하고 오늘의 한살림운동으로 이음끈을 주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민초와 호흡을 같이하는 생활 속의 수묵화의 난을 치면서 독특한 문인화의 작품세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풀 한 포기를 내 생명처럼

풀 하나, 벌레 하나, 돌 하나를 나의 생명처럼 모시라는 무위당의 뜻이 바로 생명사상의 요체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생명이론이 아니라 바로 이웃 사람들을 내 부모처럼 모시면 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그의 생명사상은 사람에서 터끌까지, 만물에 접하여 서로에게 감동하여 하나가 됨에 있다. 신라시대 최치원이 쓴 ‘접화군생(接化群生)’이라는 한마디 말로 그의 생명사상을 재현하기도 한다. 네가 있어 내가 있고 그늘이 있어 햇살이 있으니 이 모두가 각자의 연분으로 조화롭게 사는 것이어서, 아주 작은 조 한 알 안에, 혹은 평범한 이웃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속에 이미 생명의 기운이 있다는 뜻이다. 생명사상은 말만 어렵지 실제로는 생활 속의 사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장일순의 지론이었다. 70년대 이후 우리가 잘 아는 한살림 운동을 하는 등, 그의 생명사상은 신비한 고담론이 아니라 일상의 협동과 자치운동임을 강조하였다. 생명사상이라고 해서 지식인의 소유물처럼 비추어지는 것을 멀리하시어 생명이 곧 생활이라는 삶의 실천을 보여 준 것이다.

생활 속의 도덕정치

무위당의 문인화 작품 가운데는 이런 글이 있다. “시천이락(寺天怡樂)”이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 자연의 모든 생명들을 하늘처럼 모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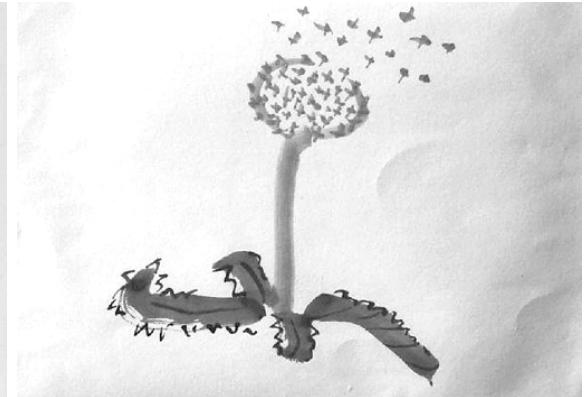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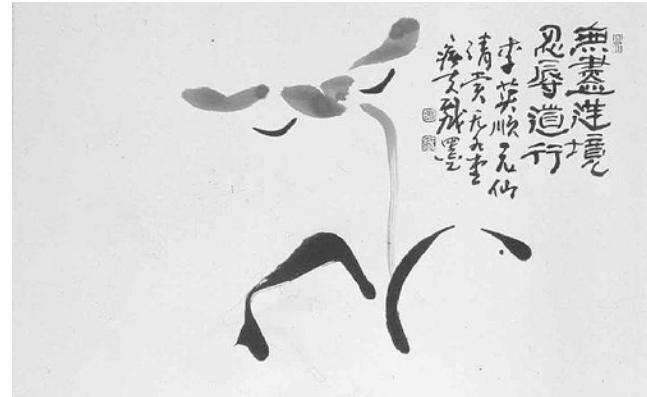
자기를 낮추면 그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위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나 자신의 오만과 남을 시기하는 그런 잘못된 자세를 빨리 뺏아 버려야 한다는 말이다. 낮은 자세로 남을 배우려는 태도를 간직한다면 어떤 사람, 어떤 사물도 승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무위당을 이해하는 시작이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권력의 힘과 이익만을 추구하며 날뛰더라도 자연의 생명과 주변의 민심을 진정 스승으로 여기고 모시라 하신 무위당의 삶의 소리를 새겨들을 때다.

김지하 시인은 무위당 사상을 한마디로 “도덕정치”라고 했는데, 그 뜻은 간단히 말해서 생명에 대한 사랑을 근간으로 한 실천적 사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람과 하늘을 어우르고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보는 철학적 사유와 그것이 사유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인의 삶 속에서 실천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뜻이다. 사물과 인간 모두를 다 사랑하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모습을 존중하며 그 사랑과 존중이 민중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 뜻을 실현하려는 한 통로가 바로 생활 속의 현실참이다. 이를 김지하 시인은 삶의 정치요 혹은 도덕정치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무위의 정치이면서 가장 현실적인 실천운동인 것이다.

무위의 실천

남북한 정상이 다시 만났다. 그것도 한반도의 허리춤을 차고 남북을 걸어갔다. 역사의 눈물이 묻어나는 현장에 우리는 서있었다. 그런 오늘의 변화를 무시하고 아직도 빨갱이 색깔론을 되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오늘날에도 통일문제는 예민한 편인데, 무위당은 이미 오래 전 50년대에 중립평화통일론을 주장하였다. 엄청난 용기였다. 서슬 퍼런 냉전을 빌미삼아 구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독재 권력은 장일순을 3년 동안 감옥에 가두고 말았지만, 그의 중립통일론의 향기는 민중 평화의 정신이었기에 결코 사라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런 평화정신은 결국 그의 교육운동, 협동조합운동, 생명운동의 흐름에 토대가 되었다. 새로운 형태의 민중평화운동의 시발점이었다. 더욱이 그의 평화운동 안에는 동학 해월사상이 깊게 깔려 있었던 것을 깊이 새겨야 한다. 종이 한 장 위에 수록 한번 치는 일, 시장 좌판 할머니를 만나는 일, 막걸리 한잔 들이켜고 밥 한술 뜯는 일 가운데 평화가 있으며 바로 그런 평화만이 도덕정치의 단초가 된다는 점을 일찌감치 우리 뜻사람들에게 일려 주었다.

性 自 無



장일순 선생의 사상은 기독교와 더불어 전통 유불도 및 동학사상에 이미 있었던 생명사상을 현대의 새로운 체험에 맞추어 재창조한 것으로 보면 적절하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모든 종교를 아우르고 있다. 그에게서 종교의 근간을 영광의 하늘세계에 두기보다는 이 땅의 낮은 사람들을 위한 일상성에 두었다는 점이 매우 독특하다. 활자를 통해서 추상적 이론을 구축한 것은 별로 없지만 깊은 종교적 성찰을 실천운동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그의 삶 자체가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가는 생생한 마음의 철학책이다. 그가 말하는 실천의 삶은 유위(有爲)의 실천이 아니라 무위(無爲)의 실천을 강조한다. 유위의 실천은 20세기 산업화의 역사에서 분명히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져다주기는 했지만, 그 대가로 인간파괴의 병리증상 같은 너무 큰 삶의 폐해를 가져왔음을 이미 간파했다. 과학기술과 고도 문명이 지배하는 오늘날 이에 부수된 심각한 환경위기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제이며,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삶 전체의 위기임을 오랜 전부터 강조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위기는 위기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식오염이라는 것이다. 이런 정신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는 생명의 지도가 바로 무위당의 생명사상이다. 이렇게 그는 삶의 원형을 상실한 물질문명의 혼돈 속에서 진정한 삶의 방식이 그려진 생명의 지도를 보여주었다.

그래서 문명의 탈을 쓰고 온갖 갈등과 부조화를 자아내는 욕심의 이기성과 억지 춘향의 인위성이 결국 오늘의 인간위기와 환경위기를 초래한 것임을 일찌감치 우리들에게 일려 준 것이다.

민중 속의 협동과 자치

60년대 중반 이후 원주에서 지학순 주교와 장일순은 만났다.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독재가 횡행하던 시대에서 저항의 새로

운 지팡이 열린 것이다. 특히 70년대 강원도를 휩쓸어간 대홍수 이후 지학순의 지원을 받은 장일순은 본격적으로 강원도 지역 농민과 광산 노동자들의 생활의식 교육을 시작하였다. 특히 장일순은 서구식 협동조합운동의 장점을 이어받아 우리 전통문화인 두레, 계, 품앗이 등 다양한 협동정신을 합쳐서 새로운 자치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래서 돈이 중심이 되는 물질만능주의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람답게 사는 협동과 자치 운동을 펼쳐갔다. 그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신용협동조합을 창립하시어 고리대금에 허덕이는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땀 흘려 노력하는 민중이 대접받는 사회를 찾아 나섰다. 농민운동을 함께하며 당장의 이익보다는 지속 가능한 농촌의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무위당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민교육관, 신협이나 생협 등을 조직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운동이 중요하다고 했다. 실은 이런 운동이란 70년대 과거운동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미래, 돈장사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다시 일으켜 할 첫째가는 민중운동이어야 한다. 이미 그의 1970년대는 현대 문명인이 모색해야 할 21세기 이후의 미래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모심과 섬김의 생으로 여는 미래

무위당의 모든 실천적 문화운동에 앞서 반드시 나 자신의 일깨움이 먼저라고 강조하였다. 남에게 뽐내고 드러나게 무언가를 이루려는 내가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남을 모시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일깨워 찾아가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모심과 섬김의 태도가 우리들 삶과 자연을 되살리는 유일한 대안이며 미래인 셈이다. 나섬과 물러섬, 모심과 섬김, 평화와 참여 사이를 중용으로 조화롭게 둑어내었던 무위당의 실천적 생명사상은 미래 문명사회의 나침반이 될 것이다.